



● 대한 양계협회 소식 ●

## 닭 경제능력검정위 원회 개최

〈1976년도 제11회〉

지난 2월 17일(화) 오후 2시 대한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1976년도 제1회 닭 경제능력 검정 위원회가 검정실무자와 검정위원 다수분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봉국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이영진 검정소장의 회의록 낭독및 경과보고가 있었고, 제10회 산란계 검정중간성적 검토 및 제11회 산란계 검정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4시간에 걸쳐서 토의 되었다.

이날 주로 토의된 사항은 75년 9월부터 76년 현재까지의 제 10회 산란계 검정능력 시험의 중간성적을 월별, 구별로 폐사율과 산란율, 난중, 사료섭취량, 평균체중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또 9회와의 비교검토도 있었다.

그리고 1976년 4월 1일~1977년 8월 15일(500일간)동안 실시될 제 11회 산란계의 검정계획에 대한 토의에서는 국내외에서 육종된 산란 실용계를 대상으로 출품을 받으며, 종계를 보유하고 있는 종계장은 전부 출품되도록 제청하기로 했고, 이날 결정된 검정방법 및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검정방법 예 : 육우사 케이지(수용능력 68개)
- 예 1 : 1반복 ○○수씩 4반복 1구○○○수 X○○구 합계 ○○○○수
- 예 2 : 1반복 ○○수씩 6반복으로 3반복은 검정 1(코에너지 코단백사료) 나머지 3반복은 검정 2(중에너지) 1구○○수 X○○구 합계 ○○○○수

- 세부사항
- 1) 집란 : 76년 3월 3일~3월 8일
- 2) 입란 : 76년 3월 9일
- 3) 입추 : 76년 4월 1일
- 4) 출품종란수 : 1구당 720개
- 5) 출품료 : 1구당 50,000원
- 6) 집란위원 및 기호부여위원(종란, 초생추):검정회의서 결정
- 7) 사료배합제 : 검정회의에서 결정
- 8) 종란기호부여일:76년 3월 8일(본회 사무실)
- 9) 초생추기호부여일:76년 3월31일(본회검정소)
- 10) 익대 부착 : 76년 4월 1일 입추시

## 각 시도 지부 및 분회실무자 회의 개최

지난 2월 13일 2시 대한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각 시도 지부 및 분회 실무자가 모인 가운데 “지부 및 분회 실무자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지부 및 분회별 사업현황보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있는 다음 요즘의 관심사인 종계등록 및 부화장등록과 확인문제, 종합소득세 자진납부및 방위세 문제, 조세감면 신청문제, 본회와 각 시도 지부 및 분회와의 업무간소화 문제등이 주로 토의되었으며, 앞으로 농수산부가 이미 시달한 바와 같이 종계 및 부화장 단속이 철저할 것이므로, 종계 및 부화장 미등록업체나 만료자는 유효기간내에 등록하도록 각 지부 및 분

회가 계도에 앞장서주기 바라며 단속반이 나갔을때 불미스러운 일이없도록 각지역별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각 지부 및 분회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더욱 확립하며, 지부 및 분회에게 각종 신청업무와 종계확인을 위임하여 업무간소화와 지부, 분회 권한을 더욱 강화시키고 아울러 왕병아리 부화장을 강력히 단속하여 비싼 종계를 구입하여 법을 준수하면서 부화업을 하는 업자를 합심하여 돕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며, 각 지부 및 분회별로 단속반을 강화, 위반자는 즉각 고발조치 시키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날 회의를 끝마쳤다.

## 안양계우회 분회가입 신청

지난 2월 10일 안양시 안양 4동 669번지(회장: 박승민, 전화: 4,900)소재 안양계우회가 본회 안양분회로 등록 신청을 낸 바 있어, 본회에서는 심의후 안양분회로 가입신청을 받기로 결정 (아직 분회 승인은 결정 안났음) 새로운 34명의 식구가 늘어 본회와 지부 및 분회 모든 회원의 희소식이 되고 있다.

안양계우회는 지난 1월 20 안양계우회 창립총회를 34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우회 사무실에서 가진뒤 분회로서의 필요성을 모두 느껴, 다시 2월초에 본회 분회 가입신청을 하게된 것이다.

안양 분회로서의 가입취지 및 목적은 안양지역 양계인의 권익보호와 상호협동심의 도모를 꾀함과 국내양계업체와 동일보호하에 분회 발전사업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창립목적을 두고 있으며, 분과로는 현재 채란 및 육계분과 위원회가 있으며 원임 및 회원명단은 본문의 안양계우회탐방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 부화 분과위원회 개최

〈전북지부〉

지난 2월 18일 11시 대한양계협회 전북지부 사무실에서 전북지부 부화분과위원회가(중계업자 포함) 10여명의 부화분과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주로 결의된 안건은 전북지부 일원의 부화장의 등록을 2월 20일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76년도 초생추 가격을 잠정적으로 아래와 같이 결의하여 가격을 엄수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외국계 : 산란계 200원, 유색 230원, 육용계 200  
국산계 : 한협 603 180원 한협 615 160원 R I R 100원 중란 40원

그리고 76년도 중계등록 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설명이 있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란계 : 외국계 5,183

한 협 6,584

육용계 : 외국계 4,644

한 협 6,796

점용계 : R I R 12,685

계 35,894

위의 숫자로서 중계등록실적이 우수한 지역임을 알 수가 있다. 이날 참석자는 부태농장 김석삼, 동



이로서 대한양계협회는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구마과 지부등의 7군데에 지부를 두고 경기·서울지역은 동두천, 포천, 안양(아직 서류상 승인 안났음) 분회등 3군데의 분회를 두고있다.

그러나 아직도 강원도 충북지역과 경기도 각지역 일원의 지부 및 분회의 설립이 촉구되는 바이다.

☆ ☆ ☆

양부회장 박인수, 고창양계센터 신흥중, 동진농장이동일, 이리부회장 차철원, 호남부회장 김학철, 북부부회장 이영창, 믿음부회장 김대한, 정읍신대인 김태현, 부안군 보안면 김무길 등이며, 전북지부 회원 이영창씨(북부부회장)가 이번에 전화 청약을 하여 개통됐는데 전화번호는 ③ 1507로서 전북지부회원 여러분에게 참고가 되도록 알려드리는 바이다.

## 정기총회 개최

〈제주도지부〉

대한양계협회 제주도지부 총회가 지난 25일 오후 2시에 제주도 문화예식장에서 회원 및 내빈 8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는데, 주요 안건은 75년도 감사보고, 76년도 예산 승인, 76년도 사업계획등이 토의되었으며, 제주도지부 고문이며 제주시 식산담당관 김윤기씨의 축사가 있었다.





## 부업 축산의 소득에 대한 면세규정 시달

〈농수산부〉

지난해 농수산부에서는 76년도부터 50% 과세가 되는 것으로 보아 부업규모의 축산소득에 대하여 축산진흥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재무부에 요청한 바 있었는데, 이 요청에 대한 회신을 다음과 같이 농수산부에 통보하여 왔다.

### □ 통보내용 □

1. 축산업에 대하여는 작년말로 서 소득세의 전액면세기간이 종료되고 금년부터 50%만 감면하게 되어 있으나,

2. 조세감면 규제법 제2조 제1항 제17호 및 지방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의 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5인 가족기준 연간소득(76년) 66만원 이하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하여,

3. 농가의 부업으로 하는 다음 규모의 축산소득에 대하여는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수산부와 협의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했다.

젖소	7 마리	(새끼포함)
소	10 "	( " )
돼지	50 "	( " )
산양	100 "	( " )
면양	100 "	( " )
토끼	500 "	( " )
닭	500 "	(병아리 제외)

## 부정축산물 및 유사도매 행위 시경합동단속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해 말부터 육류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에서 밀도살한 고기가 서울로 반입된다는 정보에 따라 20일부터 시·경합동으로 부정축산물 및 유사도매 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① 소·닭·돼지 개 등의 밀도살 ② 부

정육판매와 보관 ③ 도매시장을 거치지, 얇은 지방육판매 ④ 지방육 밀반입 및 반입차량 이다.

그런데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업소는 행정처분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리고 시민 양계인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라고 있다.

## 도계, 도건 밀도살 강력 단속중

—서울시—

서울시는 75년 10월 1일 축산물 가공처리법 개정시행 이후 허가된 도계장 이외에서는 도계를 못하도록 하였으나 본법에 생닭판매 규제조항이 없어 단속에 애로가 있고 시장정화에도 성과를 거둘 수 없어 시장법을 발동하여 시장정비 및 부조리 제거 방안의 일환으로 시장내에서 생닭 판매 행위 및 도계행위를 금지조치 하였으며, 시장내에 설치한 닭장을 전부 철거하여 생닭거래를 일체 못하도록 단속하고, 불이행시든 시장경영자를 시장법 제7조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을 가하는 강력단속 방법을 펴고 있다.

그동안 서울 본청 및 각 구청의 1월 26일부터 76년 2월 25일까지의 단속실적을 보면, 본청은 밀도계 및 판매행위 25건 밀도건 및 판매행위 4건이

며 각 구청별 단속내용은 동대문구 11건, 서대문구 3건, 성북구 4건, 강남구 1건, 영등포구 2건으로 고발조치 및 관허업소로서 허가취소 등의 강력 단속을 하고 있다.

## 행정기구 개편

—서울시—

지난 1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을 고쳐 산업국 농정과를 농축과로 개칭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보건소장이 관장해 오던 식품위생업무가 구청장에게 이관됨에 따라 각구 위생과를 신설키로 했다. 그런데 위생과의 정식개명은 3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있다.

## 한협협력회 개최

지난 2월 16일 3시 대전 국제회관 3층에서 한협협력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협협력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의 주제는 중계등록을 기간내에 빨리 마치고, 왕병아리와 세미부화를 억제하여 업계를 위한 자세로 생산조절에 모두 합심하여 전력하고, 한협협력회원 모두가 양계협회 지부나 분회에 적극 참여하여 지역적으로 왕병아리 생산을 규제하자는데 일치불 보았으며, 대한양계협회 송정택 전무로부터 중계등록현황 및 앞으로의 부화등록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였다.



## 사료품질 관리 유통세미나 개최

—한국사료협회—

지난 2월 11일 사료협회 회의실에서 사립산하 회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료품질관리 유통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낙농유업 박신호 박사의 “가축 사료에 있어서의 비단백태질소의 사용”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며 뒤이어 유윤수 회장의 “76년도의 사료원료수급전망, 배합사료 및 농후배합사료공급방향, 사료품질개선, 부원료활용방안, 축산 및 사료분야 세계, 축산물 소비촉진”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 세미나에서 유회장은 현재의 배합사료 원가구성요인을 1975년 9월 23일 조정당시의 원가와 대비하여 보면 도입옥수수 가격이 5.6% 하락한외에

강류사료(소맥피)가격이 36.1%가 상승하였고, 박류사료가격을 보면 대두박이 11.4%, 호박박, 임박이 9.9%, 채종박이 14.4%나 각각 상승하였으며, 특히 단백질원료 사료가 품귀상태를 나타내어 단백질 단위당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더욱 원료수급이나 품질보장에 차질이 염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두박의 증량공급과 가격안정을 꾀하며 축우사료에 요소이용을 권장할 방침이라고 한다.

## 젯소 송아지사육 세미나 개최

—미국사료곡물협회—

지난 26일 미국대사관 1층 무역센터에서 60여명의 관계인사가 모인 가운데 네바라스카 대학 교수인 포스터일 G·오웬박사를 초청, 슬라이드를 통한 자세한 강의가 있었다.

## 한미합동 전국순회 세미나 3월중 개최 예정

—축산업 경영능률 향상과 돼지고기 및 토끼고기 요리강습회 개최—

이번 세미나는 개별 양축가의 단독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산업전체의 경영능률 향상문제를 검토하고, 국내소비합리화의 일환으로 돼지고기, 토끼고기 요리법 개발문제와 요리실황도 결합하여 다룰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한국사료협회와 한국양돈협회가 주관하고, 농수산부, 미사료곡물협회, 미국대두박협회,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가 후원한다.

대상은 전국여성단체 및 요리연구가, 여학생, 국군, 축산관계업체, 주부들을 대상으로 축산업의 안정된 발전을 기하며 나아가서 축산물 소비증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는데,

지역별 예정 일정은 아래와 같다.

3월 16일(화) 서울	3월 17일(수) 대전
18일(목) 대구	19일(금) 포항
20일(토) 부산	22일(월) 목포
23일(화) 광주	24일(수) 전주
25일(목) 청주	26일(금) 원주

## 출국 및 입국

金在春 會長:本協會長인 김재춘 의원이 자유중국 문교행정시찰차 약 10일 예정으로 출국했다.



## 鷄 密屠殺 단속 方案마련

— 韓國家禽處理協會 —

韓國家禽處理協會(회장 김시호)는 닭고기의 유통과정에 있어 축산물가공 처리법 및 농수산부 고시에 의한 적정규모를 갖춘 도계장에서만 도계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밀도살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을 지적, 이에 따른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강구키로했다. 지난 2월 12일 同協會이사회에 따르면 도계의 밀도살행위를 근절키 위해,

- 1) 協會자체 단속원을 두도록 하며,
- 2) 시당국에 주요시장에 대한 밀도살 판매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요청하고,
- 3) 시장內에 생계의 입하를 방지하기로 하는 등의 단속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육계의 적정공급 및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육자와의 계약사육을 통해 공동구매 방법을 채택,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 鷄, 犬 인도가액 고시

— 국 세 청 —

국세청은 지난 2월 23일 닭 및 개에 대한 인도가액을 확정 고시했다. 국세청이 고시한 인도가액을 보면 닭 700원, 개 5,000원이며 대상지역은 닭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수원, 성남 등 7개 도시이며 개의 경우 서울, 부산의 2개 도시이다. 이 고시에 따라 업체측에서는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닭고기中에서 7할이 셰미브로(1kg 미만)이고 3할이 하이브로(1.8kg) 및 노계라고 지적, 인도가액을 적정선으로 낮추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보류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육계의 도계장출고가격을 보면, 셰미의 경우 首당 300~350원, 하이의 경우 1천 1백원선으로 거래되고 있다.

## 飼料用 옥수수 14만톤 購買

— 農 協 中 央 會 —

農協中央會는 2월 13일 飼料用옥수수 14만톤을 購買했다. 이로서 지금까지 확보한 옥수수는 8월 말까지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월별 선적시기 및 구매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3월 4만%(\$125.77), 4월 4만%(\$126.35),  
5월 2만%(\$127.41), 6월 4만%(\$128.04).

한편 이 물량에 대한 안정기금 적립예상액은 5억 5천 5백 42만 2천원으로 알려졌다.

## 屠畜用役 海外進出 實現될듯

— 최종 합의 위해 이란 出國 —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畜産用役의 海外進出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12일 업계에 의하면 농수산부와 협진식품(대표 함상욱) 관계자 3명이 이란정부 초청으로 10일 出國했는데 현지에서 이란 정부측과 면양도축용역 계약체결을 위한 최종합의를 벌일 계획이라 한다. 이번에 논의될 주요문제는 기술자 처우에 관한 것으로 그동안 이란정부는 기술자 1人當 주 1백 50달러 지급을 제시한데 반해 우리측은 2백달러 지급을 주장하여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이번 국내 관계자의 이란 파견으로 양측의 의견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1차로 오는 3월 중순경 5백명의 도축기술자를 이란에 진출시킬 계획으로 있다. 이러한 협의가 있기까지 협진식품은 정부의 對이란 經濟協力計劃에 따른 農水産部의 추천을 받아 이란에 면양도축용역진출을 추진하여 이란정부 관계자가 내한, 협진식품의 도축시설과 기술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우수성을 인정하게 되어 종전 이탈리아 기술진이 담당하던 면양도축용역을 한국측에 정식으로 의뢰하게 되었다고 한다.

## ■ 인산농원 도계장 인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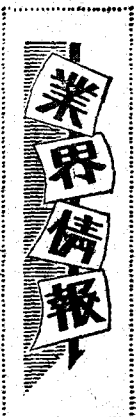
구 인산농원 도계장을 상인과 생산자가 함께 인수하여 3월중순경 가동 예정.

연락처 63~0994

● 부산 경남 지부 소식 ●

부화 분과위원회 개최

부산 경남지부는 1월 26일 마산 형제부화장에서 76년 제 1차 정기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내용은 주로 (1) 추대가격결정과 (2) 왕추 및 세미부화를 적극 저지하고 (3) 지방 부화회원들의 육성문제 등을 다뤘는데, 추대가격은 2월과 3월분을 구분하여 결정하기로 하였고 왕추 및 세미부화를 적극적으로 제지해 주기를 각 회원에게 주지시키는데 슬선수법해 주고, 지방 부화회원들의 육성은 지부 산하 각 분과회원에게 협조, 협동과 신용본위로 사업추진에 참여하자는 내용이였다. 이날 참석자는 최대한 손종현, 주양수, 김선조 씨이다.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2월 9일 채란분과 위원회를 지부사무실에서 개최했는데, 이날 토의내용은 (1) 면세연장 진전상황 및 경과를 정광영 총무로부터의 보고가 있었으며, (2) 75년도 면세 신청 방법, 일자 및 구체적인 사항을 빨리 입수, 기간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3) 사료가격변동에 대한 전망분석과 (4) 지부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뉴깃슬에 대한 예방을 회원들에게 철저히 하도록 요망하고, (5) 76년도 상반

기 채란시세전망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며, 이날 참석자는 김종경, 김기홍, 신명오, 김병태, 윤석, 홍성태, 고석진, 김기삼, 이용호, 정상영, 정태인, 황수원, 김경열, 김국봉 씨이며 (6) 육계분과위원회는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기금을 거출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실적은 약 70%에 가깝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회원들의 결속이 요망되고 있다고 한다.

제2차 사료품질관리 세미나개최

—유니화학 후원—

한국사료협회 주최 유니화학 후원(대표: 윤병선)으로 지난 2월 28일 10시, 사료협회 회의실에서 76년 제 2차 사료품질관리 세미나를 관계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주제로는 “사료의 고품질이 방지와 사료위생”으로 가축위생연구소의 박근식 과장과 미국 연합수의고문 위타키 박사를 초빙, 슬라이드를 결한 강의가 실감나게 진행되어 회원들의 관심을 모았고, 여러가지의 질문이 있었다.

◆ 이전 및 변경 ◆

축산기업 조합: 1월 20일자로 중구 울지로 4가 310~68호로 이전 (26)3191-6 교 357번

한국양토희동조합: 1월 24일 용산구 서계동: 221~10으로 이전 (28)8728

제일사료 서울사무소: 대표 교환 (22)1131-4 사장실 (28)6771, 전무실 (23)1535, 이사실(28)4008

천호부화장: 3월 10일경 주소변경 예정

주소: 도봉구 공릉동 310~3전화 (97)2612, 2433

◆ 인 사 이 등 ◆

국립축육장장: 김영진(전 축산국장) 영진 축산국장: 김일노(국립 부산생사지역소) 축산연구관: 최병인(국립축육장 부장장) 삼성사료: 이석규(삼일부화장부장) 서울 사무소로 유경사료: 이정주(대성미생물 영업부장) 영업부장으로

한두교역: 이성백(영업부 과장 대리)

한성사료: 허은도(전대 축대졸) 마산사무소

우영목장: 오세권(한축 양돈과장) 축산부 차장

경상제분: 최상강(과장대리 승진)

한풍산업: 손만오(과장으로 승진)

홍원기업: 노선호(삼우화학) 영업부장으로

동서농산: 성이계(차장으로)

주소변경: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 859번지 서울 중구 소공동 112의 24

무안서감: 서권수(전대 졸) 기사로 입사

주소: 전남 무안군 무안면 133-1

대성미생물: 이승희(영업부 입사, 충청도 북서부 지역주재원)

영남제분: 강문일(서울사무소 소장으로)